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연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흥 김홍필



진도 조상웅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 화순 철쭉꽃 배경 봄축제 '풍성'

철쭉꽃의 아름다운 자태와 고인돌, 운주사 등 화순의 대표 관광지를 배경으로 화순에서 봄 축제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18일 화순군에 따르면 21일부터 22일까지 세계유산 화순고인돌 유적지(도곡면 효산리) 일원에서 '화순고인돌문화축제'가 '정보리 물결따라~고인돌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특히 지난 19일 고인돌 선사체험장이 개장돼 고인돌이야기 중심의 체험프로그램과 인기 가수 남진(21일), 김용익(22일)이 초대 가수 공연 등 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됐다.

같은 기간(21~22일) 동안 화순읍 동구리 호수공원에서 봄 축제가 화순읍청년연합회(회장 이교철) 주관으로 열린다.

시낭송, 인기 가수 공연, '오감각 힐링 건강 걷기 대회', 사생대회와 함께 먹거리장터, 산지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고산 철쭉의 아름다움을 배

오는 21일부터 '화순고인돌문화축제 개최'

동구리 호수공원·백아산 철쭉제 등 다채



경으로 백아산 철쭉제와 화화산 철쭉제가 5월 중에 각각 열린다.

백아산 철쭉제는 5월 4일 백아산 마당바위 일원에서 6.25전쟁 때 산하한 영령들을 애도하는 위령제를 시

작으로 5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올해로 제13회째인 화화산 철쭉제는 개화시기를 고려해 5월 6일 화화산 정상 일원에서 청풍면청년회(회장 이선형)가 주관해 고산 철쭉의 아

름다움을 배경으로 다채롭게 펼쳐진다.

청풍면과 도암면에 걸쳐 있는 산으로 산세가 학이 날개를 펼쳐놓은 형상을 해 이름 붙여진 '화화산'은 해발 600m 이상에서 자생하는 100년 이상 된 '고산 철쭉'으로 유명하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출향인사 향우회원과 청풍초등학교 동문, 등산 동호회원 등 많은 상춘객들의 발길이 예상되고 있다.

5월 21일에는 천불전탑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운주사에서 일원에서 '꿈꾸는 북두, 일어서는 와불'이라는 주제로 '화순운주문화축제'가 석가탄신일인 22일까지 열린다.

천불전탑 퍼포먼스를 비롯해 연등·연꽃 만들기 등 특별하고 다채로운 가족단위 행사가 준비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완연한 봄을 맞아 가족과 함께 힐링화순에서 특별한 경험을 소중히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순천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연합회 개최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윤종식)은 17일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우석홀에서 관내 유·초·중학교 교직원, 학부모, 지자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순천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연합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합회는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지정 첫 해를 맞이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남형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무지개학교 교육지구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함으로써,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을 통해 만들어가는 새로운 학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준비하였다.

특히 이날 강사 김준성(별교 상업고등학교 교사)은 "미래사회는 통섭의 융복합사대로 집단 지성 사회의 도래를 강조하면서 무지개학교 의미를 크게 부여했고, 학생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학교교육 실현을 위해서 순천무지개학교 교육지구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순천=김승호 기자

## 구 광양역사 앞 폐창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컨벤션센터·편의시설 등 갖춘 복합문화공간 조성

전남도립미술관이 들어설 예정인 구 광양역사 부지 앞에 있는 폐창고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시는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산업'의 일환으로 2019년까지 구 광양역 앞 폐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구 광양역 앞에 있었던 폐창고는 1970년대 과거 물류창고로서 큰 역할을 하였으나, 점차 기능을 상실했

으며,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라 광양역이 이전돼 현재는 일부 건물만이 공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2015년 7월 전남도립미술관이 광양에 최종적으로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도립미술관 인접에 위치한 폐창고의 활용방안도 대두돼 왔

다. 이에, 시는 도립미술관과 연계한

시민들의 문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산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8억 원을 확보하였다.

그동안 시는 건축가, 문화기획자,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현장 자문을 수차례 실시했으며, 건축물 내부 구조의 가치성과 안전도, 공간으로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

또 올 하반기 공사 착공을 위해

사업대상지 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폐창고 내부를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시민컨벤션센터, 카페, 편의시설 등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공간 구성을 위해 오는 5월 제안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형곤 문화예술과장은 "구 광양역 앞 폐창고가 새롭게 리모델링되면 2020년 완공되는 전남도립미술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이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채무본부장



## 순천시, 봄철 여행지 인기 '전국 3위'

다음소프트 빅데이터 분석결과

순천시가 제주도, 부산에 이어 봄 여행지로 전국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빅데이터 분석업체인 다음소프트가 16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8년 4월 10일까지 블로그, 트위터 등 SN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순천이 제주도와 부산에 이어 봄 인기 여행지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전주와 경주가 순위를 차지 했다.

이번 결과는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과 부산을 제외하고는 최고 순위를 차지하였고, 전통적인 관광도시인 전주, 전주보다 높아 생태관광 도시로서 이미지 구축과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준비하는 순천시의 입장으로

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홍보진과 위영애 과장은 "순천만국가정원의 1억송이 봄꽃축제를 비롯한 사계절축제가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신 관광 트렌드에 맞는 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국내여행의 시기가 여름휴가등 성수기와 비수기의 경계가 사라졌고 선호하는 여행 스타일도 '자연' 대신 '쇼핑', '구경' 대신 '휴식'으로 여행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양경제청, 산업단지 진입도로 품질시공 '이상 무'

공사관련 전문가·GFEZ공무원·건설사업 상생협의체 현장점검



광양반관정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에서는 지난 18일 '울촌제2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에

대해 공사관련 전문가, GFEZ 기술직 공무원과 건설사업 상생협의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품질확보 방안 집중토의 및 시공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울촌 제2단지 진입도로 현장에서는 해상교량 '울촌교(길이 160m, 폭 21.5m)'의 하부구조 RCX(현장콘크리트타설 및 철근조립 및 레미콘 타설)을 계획 중이었다.

참석자들은 해수면 아래 연약지반에서의 교량기초 품질확보 시공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다양한 기술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수중레미콘 불분리 혼화제 배합과 시공 후 품질시험 방법, 재료분리 발생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것이었다.

또한 광양경제청에서 지난 3월 말에 발주청과 원·하도급사간 수평적인 소통관계 형성을 위해 구성된 '건설사업 상생협의체'와 함께 토의를 진행해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었다.

이후 현장에서는 단순한 시공실태

뿐만 아니라 해양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점검이 이루어 졌다.

참석한 관계자들은 "깊이 있는 의견 제시로 이론과 현장 간에 상충되는 품질확보의 어려움이 해소되었다"며 "각 분야의 사람들이 동시에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더 나은 해결 방안을 찾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단단 진입도로 등 SOC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가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한 건설사업 상생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호 전남동부채무본부장

#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맛과 향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영호우 시티

장성군